

“소통·화합...제2의 장보고 시대 활짝 열겠다”

신우철

완도군수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민선 7기 이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며, 대형 SOC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민선 8기에는 6기와 7기에 추진해왔던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가시적 성과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더불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중단 없는 완도 발전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다짐이다.

‘희망이 넘치는 군민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발전, 복지 발전, 미래 발전’ 등 3개 발전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해 제2의 장보고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포부다.



◇해양산업 성공적 안착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민선 7기 시절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부문에 1,000여억 원 예산을 확보해 해양치유센터 착공 및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등 공공시설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원 건립과 웰니스 상품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해조류와 전복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를 착공했다. 해조류 활성 소재 인종·생산시설과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 공급기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해양바이오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 등을 통해 전복과 해조류 고부가가치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발전 전략 SOC사업 추진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완도의 미래를 견인할 대형 SOC사업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해 대도시와 접근성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

특히 완도군의 20년 숙원이었던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국도로 승격됐다.

국도 승격은 2001년 국도 77호선 지정 이후 20년 만이며,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약산~금일~금당~고흥 거름구 42.4km 구간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9,008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약 3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광주~강진 성전까지 1단계 구간은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 추진 중이다.

앞으로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구간도 조기에 착공해 완전히 개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5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완도~고

해양치유·바이오 산업 활성화 총력

교통망 확충 대도시와 접근성 개선

국립난대수목원 조기착수 최우선

해외시장 개척 어업인 소득 창출

500만 웰니스 관광시대 기반 구축

흥 해안관광도로는 약산에서 금일~금당~고흥 거름구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을 최우선으로 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화~소안~보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접근성 개선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물류비 절감 등과 함께 도서 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산림치유 명소로

전국 최대 규모의 난대림을 보유한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성공했다.

완도수목원 400ha 면적에 1,9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완도를 산림치유의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 약 3,500ha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완도수목원은 2,000ha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앞으로 완도수목원에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 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계절 전시 온실과 산악 열차 등도 갖출 계획이다. 특히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이 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85만 명의 관광객이 완도를 찾고, 1만 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무려 1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 힘써

완도군은 그동안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농수축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 개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확대 ▲수산물 가공 히트 상품 개발 ▲스마트 농수축산업 육성 ▲ESG 경영 전략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성과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미국과 러시아 등 3개국에 118톤을 수출했다.

지난 11년 동안 폐쇄되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도 다시 개소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7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축사 현대화 및 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은 전복과 해조류 양식 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55개나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 광어까지 확대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내 시장을 겨냥해 유기 수산물 인증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장보고 상단을 통해 미국 등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완도 수산물이 더 많은 해외 시장 선전에 나선다.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으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됐으며 해외 시장 개척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300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1개소가 선정, 824억 원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어업인의 소득 창출 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총총한 복지 정책...행복한 완도 만들기

신우철 완도군수는 총총한 복지 정책을 수립해 더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어르신에게는 ▲완도형 고향자 복지 주력 건설 ▲홀로 어르신 돌봄 로봇 서비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무료 운임제 시행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밤 9시까지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돌봄 가족센터 건립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확충해 가고,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초·중·고생 입학 축하금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과 다문화가정, 장애인에게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설치 ▲다문화가정 번역기 지원 ▲장애인 실내체육 시설 건립을 약속했다. 아울러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마을 단위 하수도 정비, 침수 예방사업, LPG 배관망 구축,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완도군은 2023년 전남 도민제전과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2024 생활체육 대축전도 유치했다.

2년간의 대회 개최로 5만여 명의 선수단과 응원단 방문으로 코로나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3선의 영광을 얻게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계 세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당연한 현안 사업을 꼼꼼하게 잘 해결하라는 군민들의 뜨거운 열망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물관 유치, 이순신장군 역사 공원화 사업, 섬 관광 활성화 등 굵직한 사업을 통해 500만 웰니스 관광시대를 열겠다”며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주요 공약

-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추진
-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연도·연륙교 사업 조기 착공
-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 ▲기후변화 대응 신상품 개발 및 양식 기자재 현대화 사업
- ▲장보고 상단 운영
-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
-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 ▲어린이 복합 문화 도서관 및 재활센터 건립
-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조성
-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 ▲국립해양수산물물관 유치
- ▲장보고 성역화 사업 및 법화사 재건
- ▲해상케이블카 건설
- ▲국가어항 개발
-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신우철이 걸어온 길

- ▲전남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산과학과 졸업
- ▲국립수산진흥원 진도 어촌지도소장
-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지방기술서기관
-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 ▲진도부군수
-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위 위원장
- ▲완도수산물 총동문화장
-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위 위원장
- ▲민선6기, 7기 완도군수

(왼쪽부터)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착공식 모습. ▶신우철 완도군수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완도군이 운영중인 해양치유 체험존 필라테스 모습.

